

## A study on Chou Sun-Ae's spiritual formation process in light of Carl Jung's individuation\*

Hee-Young K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Chou Sun-Ae's spiritual formation in the light of Carl Jung's conception of individuation. Spirituality is defined in different ways by different scholars, but most consider self-transcendence as a necessary element. This self-transcendence can occur in the relationship with self, with others, and with the transcendent.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self, it appears as self-objectification; with others, it is as moving toward others; and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transcendent, it moves toward the transcendent. Spirituality is closely related to individual identity, in that it surrounds and integrates life. Spiritual formation is thus closely related to Jung's concept of individuation, as this involves the separation of persona and ego, and shadow recognition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level of self-objectification. In addition, the withdrawal of shadow projection that occurs in individuation is closely related to moving toward others, in that it recognizes the shadow instead of blaming others, allowing one to look at others without prejudice. The fact that Jesus Christ is the symbol of the Self, the driving force of the individuation process, tells us that spirituality leading to a relationship with the transcendent God and Jung's theory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Thus, if we examine the process of spiritual formation through the Jung's individuation process, we can better understand the psychodynamic dimension of spirituality.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rocess of Chou Sun-Ae's spiritual formation through Jung's individuation process. Throughout her 98 years, Chou Sun-Ae experienced national pain and hardships, as well as personal adversity and difficulties; but through all of these hardships, conflicts, and difficult moments, she accomplished individualization. Therefore, by examining the spiritual formation through individuation in Chou Sun-Ae, I consider the direction of Christian spiritual education. In this study, three main characteristics of Chou Sun-Ae's spiritual formation can be identified. First, through a life of repentance, the identification between persona and ego can be weakened. Second, the ego develops, and individualization is achieved, through a new calling. Third, in shadow integration, the spiritual development comes to recognize Jesus Christ on the cross and achieve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Investigating the direction of Christian spiritual education through Chou Sun-Ae's spiritual formation indicates that Christian spiritual education should harmonize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 and should develop an experience of the transcendent God in everyday life. By this means, the believer can achieve Self-realization and be a true Christian who practices love for God and love for neighbors.

### Key Words

Chou Sun-Ae, spirituality, Carl Jung, individuation, shadow, persona

\* This work was supported by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Grant in 2023.

Received June 4, 2023 Revised June 28, 2023 Accepted June 29, 2023

Author : Hee-Young Kim, Assistant Professor,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gloria1009@naver.com

## 칼 융의 개성화 과정에 비추어 본 주선애의 영성형성과정 연구\*

김희영\*\*  
(장로회신학대학교)

###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융의 개성화 과정에 비추어 본 주선애의 영성형성과정에 관한 글이다. 영성은 학자들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하지만 공통된 특징은 자기초월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초월은 나와 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초월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나와 의 관계에서는 자기 객관화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타자 지향으로, 초월자와의 관계에서는 초월자를 향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영성은 삶을 둘러싸고 통합하는 점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관계가 깊다. 이러한 영성형성은 융의 개성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융의 페르조나와 자아의 분리, 그림자 인식은 자기 객관화의 차원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또한 개성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림자 투사 철회는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며, 타인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게 하는 점에서 타자 지향과 관계가 깊다. 개성화 과정의 원동력인 자기(Self)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초월자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영성과 융의 이론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기에 융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 영성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영성의 심리역동적인 차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주선애의 영성형성과정을 융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선애는 98년의 생애를 통해 민족의 아픔과 고난, 개인의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한 고난과 갈등, 어려운 순간을 통해 개성화 과정을 이루었다. 따라서 문헌연구로 주선애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 영성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영성교육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를 통해 주선애의 영성형성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회개의 삶을 통해 페르조나와 자아의 동일시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소명을 통해 자아가 발달하고 개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셋째, 그림자 통합의 과정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화의 과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선애의 영성형성의 특징을 통해 기독교 영성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면 기독교 영성교육은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조화를 이루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일상의 삶에서 초월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참된 자기 자신이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주제어 〉

주선애, 영성, 융, 개성화, 그림자, 페르조나

□ 2023년 6월 4일 접수, 2023년 6월 28일 심사완료, 2023년 6월 29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2023. 6. 10.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23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학술연구교수, gloria1009@naver.com

## I. 들어가는 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인간에게 정서적인 차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공급받고 학업과 직장의 일을 이어나가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정서적인 교류와 행동의 제약은 사람들의 심리와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적인 차원이 중시되어도 정서적인 차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내면, 정서,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융(Jung)은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심리적 역동성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알고 심리의 문제를 해결하며 전체성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그는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무의식을 강조하였지만 프로이트와는 달리 무의식을 단지 부정적인 요소로만 보지 않았다. 무의식은 우리의 억압된 산물로 부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이를 잘 분석하고 살펴볼 때 인간의 전체성을 이루고 참된 자기 자신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하여 훼손된 형상을 가지고 있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공존한다는 기독교의 인간관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인간은 전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악하지도 않다. 누구에게나 선한 모습과 어두운 모습이 공존한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인간의 전체성을 이루고 참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과 사회 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차원들은 점차 소외되고 침묵되어지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심리적 문제와 자기실현의 욕구,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며 “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종교의 여부를 떠나서 내적인 명상, 성찰을 통해 본래적인 자신에 대하여 성찰을 하고 내면을 돌보고자 한다. 융(2005)은 자신의 환자 중 “나의 인생에 의미와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기만 했어도, 나의 신경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였다. 사람들의 부유함과 가난함, 가족과 사회적 지위 등 외부 환경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며 영적인 삶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다.

융의 분석심리학은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며 전체성을 형성하고 본래의 고유한 자기 자신이 되는데 좋은 통찰을 제공한다. 이러한 융의 분석심리학은 기독교 영성학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 기독교 영성에서도 위 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의 정화-조명-일치, 그리고 언더힐(Underhill, 2004)의 각성-정화-조명-어두운 밤-일치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영성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정화하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진정성을 이루며, 자신에게서 벗어나 초월자와 타인과 관계를 하기 때문이다. 즉, 융의 이론은 기독교

영성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심리 역동적인 차원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은 현대 사회의 의미, 내면의 욕구의 문제에 대하여 용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 영성형성과정을 주선애의 삶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영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며, 둘째, 영성과 용의 개성화 과정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셋째, 주선애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 주선애의 영성형성과정의 특징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주선애의 영성형성을 통해 본 영성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선애를 영성형성과정의 모델로 삼은 이유는 주선애는 4대째 신앙생활을 한 여성으로 98년의 생애 가운데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한국의 산업화 등 한국의 통시적인 역사 가운데 역사의 명과 암을 함께 경험했으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시대의 사명 앞에 기도하며 기독교교육을 했던 학자요, 실천가이다. 민족과 개인의 어려움 가운데서 영성을 형성하며 한국 기독교와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점은 주선애가 한국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 용의 이론을 통해 그녀의 영성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주선애는 교육자, 기독교교육학자로서 연구가 되어왔다. 특별히 오인탁(1998)의 “주선애의 생애와 사상,” 양금희(2015)의 “한국 최초 여성 기독교교육학자, 주선애의 공적 기독교교육 사상과 실천에 관한 연구”는 주선애의 생애와 교육사상에 관하여 잘 설명해 주었다. 주선애(2018)의 자서전에는 그녀의 생애와 사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나와 있어 그녀의 삶 전반과 실천, 교육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2017년도에 “여성 기독교인의 영성형성과정 연구-자아정체성과 자기초월을 중심으로-” 박사논문에서 여성 기독교인의 영성형성과정의 모델로 주선애가 소개된 바 있다(김희영, 2017). 주선애 사후 그녀의 제자들(오인탁, 2022; 박상진, 2022; 차정규, 2022; 김화자, 2022)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주선애의 삶과 교육에 대하여 서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영성형성과정을 용의 개성화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

영성교육에 관하여는 많은 기독교교육학자들이 연구해왔다(이금만, 2000; 임창복, 2006; 양금희, 2020; 이규민, 2008; 김도일, 장신근, 2009; 조은하, 2010). 그러나 한 사람의 생애를 중심으로 영성형성과정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 따라서 주선애의 삶을 통해 전생애적인 영성형성의 과정에 대하여 용의 개성화 이론에 비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원래 용은 꿈의 분석과 상징을 통해 무의식을 연구해왔다. 그러나 주선애는 그 자서전에서 그 내용을 살필 수 없다. 꿈의 상징, 내용에 대하여 기록한 글이나 녹취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며 본 글은 그녀의 자서전과 1, 2차 자료와 소천하기 2달 전 마지막 날 남긴 강의안 녹취를 통해 영성형성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표현

된 ‘자기’는 일반적인 ‘나’를 의미하기도 하며, 융의 이론에서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는 전체 인격으로서의 자기(Self)를 의미하기도 한다.

## II. 영성형성과 융의 개성화 과정

### 1. 영성형성의 특징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이라는 말은 라틴어 스프리투스(spiritus)로부터 유래되어, ‘숨’, ‘생명’, ‘영’을 의미한다(임창복 외 3인, 2006. 49). 커즌즈(Cousins, 1985)는 “영적인 핵은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이다. 인간이 초월적인 차원에 열리는 것이 바로 이곳이다.”고 말한다. 영은 인간 내면의 깊은 중심으로서 자기의식, 비판, 이해를 추구하도록 내면의 성찰을 주며, 자기를 넘어서서 외부로 지향하게 하는 초월의 장이 된다. 맥쿼리(John Macquarrie, 2000)는 사람이 영 안에서 자기를 넘어서서 자기 의식, 자기 비판, 이해, 책임, 선을 추구, 공동체 형성을 한다고 하였다. 영은 개방성과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을 넘어서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영으로서의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맥쿼리(John Macquarrie, 2000)는 영성은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영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그중 바바라 보외(2003)의 인용을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Bowe, 2003, 10; 임창복 외 4인, 2006, 49에서 재인용).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영성을 자기-초월의 능력으로, 진리를 알게 하는 우리의 재능으로 증명되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람들과 사상에 자유롭게 나타내는 것으로 말한다. 심리학자들은 가끔 이 ‘영성’이라는 용어를 인간에게 힘과 에너지, 그리고 행동의 힘을 주는 인간의 정수의 관점으로 사용한다. 종교적 사람은 영성을 궁극적인 또는 거룩한 존재에 의해 알려지는 것으로 인간 자기-초월의 실재화로서 말한다.

영성은 사람이 인식한 궁극적 가치를 향하여 자아-초월의 형태로 자신의 삶을 통합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경험이라는 것이다(임창복, 2006, 49). 슈나이더스(Schneiders)는 영성은 소외나 자기 몰두가 아니라 궁극적인 가치를 향하여 자기초월을 통해 삶의 통합을 이루는 인간의 경험이라고 보았다(Downey, 2001, 31-32). 콘(Conn)은 영성은 영적이고 자기초월적인 인간 능력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관계적이고 모든 삶을 둘러싼다고 말한다(Conn, 1986, 9; Hanson, 2000, 243에서 재인용). 영성은 인간이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를 통하여 인간에게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는 자기-초월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가 된다

는 것이다(양금희, 2020, 278). 맥그래스(McGrath, 2006)는 기독교 영성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탐구이며, 기독교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함께 묶어주어 삶과 연관시키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범위와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경험”이라고 하였다.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의 신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안에서의 삶을 다루는 자기초월적이며, 삶의 통합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도란(Doran, 1988)은 기독교인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자신과 공동체에 대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는 의지, 자기 초월 안에서의 성장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양금희(2020)는 영성의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 보며, 영성은 인간의 내면의 요소이며, 신적 존재와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인간 안의 자기-초월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며, 삶과 관련성이 있으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통전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분류하였다. 이처럼 영성은 초월자와의 관계, 자기 초월, 삶의 방향성과 삶의 관련성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성은 다양한 특성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많이 논의하고 있는 개념은 ‘자기초월’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초월’은 초월자와의 관계, 자신의 삶을 넘어서서 타인에게로 향하는 것, 자기를 넘어서서 자기비판을 할 수 있는 자기 객관화의 차원을 포함한다. 또한 영성은 삶을 통합하며, 자기의식과 비판을 통해 자기지식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정체성 형성에도 관계가 있다.

이러한 영성은 영인 인간을 영적 존재가 되게 하는 것으로 참된 인간다운 삶을 이루게 한다. 영성 형성 가운데 경험, 이해, 판단, 결단의 작용으로 주의 깊고, 지적이 되고, 이성적이 되고, 책임감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게 되고 진정성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유해룡, 2012, 193-194). 의식 안에서 지적인 작용을 할 뿐 아니라 정감적인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영성형성을 통해 영으로서의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면서 동시에 지성적, 심리적, 행위까지 모두 아우르는 전인적인 차원으로 통합하게 된다.

도란(Doran, 1988)은 기독교인의 영적인 변형을 로너간의 자기 초월과 자기 적절화로 범주화하여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영성의 관련성을 논하였다. 그는 기독교인의 영적 변혁을 교회인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초월로의 지속적인 회심의 문제로 보았다. 따라서 본 글은 영성의 자기초월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어떻게 개인이 자기초월을 이루고 동시에 자기 지식을 얻으며 영성을 형성해 가는지 융의 개성화의 이론을 통해 논하고자 한다.

## 2. 개성화 과정

## 1) 개성화란

융에게 개성화의 과정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며 전체 인격을 이뤄가는 것을 말한다. 인간에게는 의식의 영역뿐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 무의식에는 억압된 소재 외에도 의식에 오르지 않는 감각 지각을 포함한 정신적인 것이 있다(Jung, 2018, 17-18). 이러한 무의식에는 개인적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다. 개인 무의식은 한 개인의 경험 세계에서 나오는 무의식으로(김성민, 2012, 38), 현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의식에서 탈락된 내용과 심리적 소재가 열등성으로 자리하고 있다(Jung, 2018, 17-29). 집단 무의식은 비개인적이고 유전된 범주나 원형의 형태로 집단적인 것을 내포한 것이다(Jung, 2018, 31). 이는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정신적인 요인으로 원형-인류가 그동안 경험해 왔던 것들이 침전되어 만든 원시적이고 고대적인 특성을 띤 틀-이다. 교류가 서로 없던 서로 다른 부족들 사이에서 유사한 신화적 주제가 발견되는 것을 통해 인류가 같은 조상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 왔던 것이 유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성민, 2012, 38-39). 개인 무의식의 내용은 평생을 두고 습득되지만, 집단 무의식의 내용물은 처음부터 항상 있어 왔던 원형들이다(Jung, 2019, 20). 이러한 무의식을 의식화하며 개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개성화(individuation)이며, 이는 본래적인 자기(Self)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분열되지 않는(in-divide)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찾게 해준다. 융은 개성화를 통해 집단 무의식의 경험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이규민, 2015, 142-143, 146).

융은 자기(Self)가 우리 정신의 중심이고, 정신을 통합하는 내적 지도 요인이라고 보았다. 시작과 마지막이요, 개인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있으며 초월적인 기능을 한다. 그 상징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맨 밑바닥까지 걸쳐 있으며 자아를 대체하지 않는 자아의 상위개념으로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을 포함하는 인격 전체를 말한다(Jung, 2019, 12, 59; 김성민, 2012, 45).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한한 능력과 다양한 삶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일부분만 쓰고 있을 뿐, 자신의 내면의 무의식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 이념에 투사하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래서 시야가 더욱 좁아져 자신의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을 살려 전체로서 살아가는 개성화가 필요하다(이부영, 2021, 180-182).

융은 이러한 개성화 과정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35세 이후 인생의 후반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인생의 전반부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융은 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아직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거나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젊은이에게는 의식적인 자아(에고)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다듬고 의지

를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Jung, 2005, 84-85). 인생의 오전은 개인의 발달, 외부 세계에 대한 기여, 중의 번식과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 등 생명의 확장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어린 시절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Jung, 2005, 113-114). 인생의 후반에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을 살피는 일을 과거에는 종교가 해왔지만, 지금은 종교가 생의 후반기를 위한 학교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Jung, 2005, 114). 그렇기에 종교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보며, 인생의 후반기에는 특히 내면을 살필 필요가 있고 개성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자아와 개성화 과정

이러한 개성화 과정을 위해서는 먼저 자아(ego)발달이 우선적이다. 자아는 의식이 하는 모든 개인적인 행위의 주체이다. 정신의 내용물이 주체에게 제시되어야 의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아의 정신적 내용물과의 관계는 의식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된다(Jung, 2019, 12). 자아는 의식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전체로서의 의식과는 구분된 의식 영역의 참조점으로, 적응하는 모든 노력의 주체가 된다. 자아는 평생에 걸쳐 습득되기도 하는데 신체적 요소와 환경 사이의 충돌에서 시작되어, 하나의 주체로 확고히 자리를 잡으면 외부 세계와 내면세계와의 충돌을 통해 발달한다(Jung, 2019, 13-17). 그런데 자아가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무의식적 요소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면, 자아의 적응이 방해를 받고 다양한 사건이 일어날 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자아가 의식의 세계에 닿을 내리고 무의식의 징후들을 정확히 관찰하고 객관적인 자기비판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Jung, 2019, 48).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가운데 세상을 달리 보며 “이제 모든 수수께끼는 풀렸다.”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속속들이 볼 수 있다는 느낌, 너 우주와 하나가 된 느낌은 자아가 자기에게 동화됨으로써 일어난 가상적인 해탈감이다. 그래서 의식성을 회복하며 객관적으로 자신의 비판적인 성찰을 견지하고 현실에 적응해야 할 것을 말한다(이부영, 2022, 154-157). 또한 자아 인격과 의식 세계가 강화되어 무의식의 형상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자아에 동화되어도 자아 팽창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Jung, 2019, 49). 그렇기 때문에 개성화 과정에서 자아가 자기에 동화되지 않도록, 자기가 자아에 동화되지 않도록 의식의 세계에 닿을 내리면서도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고 무의식의 형상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이부영, 2022, 157).

이러한 개성화의 과정은 자아가 페르조나와 동일시에서 벗어나고, 우리 정신에 있는 그림자를 통합하며, 아니마/아니무스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분화시켜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



리에게 주어진 자기(Self)를 발견하여 자기가 자아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김성민, 2012, 46). 따라서 개성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페르조나와 그림자, 아니마/아니무스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페르조나와 그림자, 아니마/아니무스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개성화 과정

#### (1) 페르조나(Persona) 인식

융의 개성화 과정은 개인이 페르조나를 인식하면서 시작된다. 인간의 페르조나는 개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사회적 기대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계 또는 태도를 말한다. 사회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것을 기대한다. 한 사람이 목사라면 객관적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다른 상황 아래에서도 목사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맞추어 쓰는 일종의 ‘가면’과 같은 것이 페르조나이며 이는 개별 의식과 사회를 연결해 준다(Jung, 2018, 11; 김성민, 2012, 42). 이러한 점에서 페르조나는 한 개인의 독특성과 개성이라기보다는 집단정신의 가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참된 본성을 가지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페르조나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러한 태도는 무의식적 반응을 일으키고 배우자를 통해 그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기에 자기 실현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무엇으로 보이는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Jung, 2018, 56, 100, 104).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페르조나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인격 전체로 살아야 한다. 페르조나를 인격의 전체성과 통합시켜서 살아야 한다(김성민, 2012, 178). 만약 페르조나와 다른 모습이 나오거나, 내면의 감정과 움직임이 있을 경우, 배우자에게 투사하여 배우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의식에 대하여 무의식의 과정이 ‘보상적’으로 일어날 경우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Jung, 2018, 80-81, 102 참조).

#### (2) 그림자 투사 철회

그림자는 의식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무의식의 내용으로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이다. 이는 자아가 수용할 수 없어 배척되어 억압된 성격으로 어두운 측면이다. 그렇기에 그림자는 자아와 비슷하면서도 자아와는 대조적인,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열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부영, 2003, 40-41). 그림자는 의식의 일방적인 성향에 대립되는 무의식의 대자이다. 그래서 사회적 선을 행하고 행해야 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일수록 무의식에는 폭력배, 사기꾼 같은 부도덕한 그림자상이 나타난다(이부영, 2022, 128). 이러한 어둡고 열등한 특성은 어떠한 행위라기보다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차원이다. 나도 모르게 알 수 없이 거북한 느낌이나 불편한 감정, 혐오감이 일어나는 것은 그림자의 무의식적 투사가 일어나서 그렇다. 그래서 인격의 어두운 측면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투사된 그림자상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오는 용기가 필요하다(이부영, 2003, 91-92; Jung, 2019, 20-21). 이러한 그림자 투사는 개인뿐 아니라 집단에서도 일어난다. 전쟁 시에 그림자 원형이 적의 집단에 투사가 되고 자신들에게 영웅 신화가 배설된다면, 적은 죽여야 할 악한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이들과 싸우는 이는 괴물을 죽이고 여인을 구출하는 영웅 원형상과 동일시된다는 것이다(이부영, 2003, 118-119). 이러한 그림자의 집단적 투사는 세계대전과 중세의 마녀사냥, 이념대립, 인종 간 갈등에서 볼 수 있다(이부영, 2003, 116-141). 그렇기에 그림자 투사는 인간관계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상호 간에 불신과 반목, 증오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이부영, 2003, 96).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보고 비난하는 좋지 않은 생각이나 욕심을 보며 자기 안에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와 타인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림자를 그대로 두면 자신이 그림자에 동화되어 원치 않는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와의 대면과 인정은 그 사람을 ‘나쁜 성격’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표현을 통해 긴장감을 해소하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피해와 상대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이부영, 2021, 102-105).

### (3) 아니마/아니무스(Anima/Animus)

페르조나가 자아와 외부 세계의 접촉을 중재해 주는 요소라면, 자아와 내면세계의 접촉을 중재해 주는 것은 아니마/아니무스이다. 용은 남성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 요소를 아니마, 여성 안에 존재하는 남성적 요소를 아니무스라고 불렀다. 이 요소는 우리의 내면의 이미지를 나타내주며 이성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며 보상적이다(김성민, 2012, 42-43; Jung, 2019, 31).

이는 내적인 태도, 심혼(Seele)으로 자율성을 지니고, 보통 남성의 심혼은 여성적 성질을, 여성의 심혼은 남성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이부영, 2001, 43, 52). 심혼상은 우리 조상의 침전물로서 인류의 원초적인 조건에 그 원천이 있지만 개인적 생활환경과 시대적 남성관, 여성관에 관련된 집단 의식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부영, 2001, 82). 그래서 심혼상이 투사가 되어 ‘첫눈에 반하’고 ‘이유 없이 끌리는’ 일이 일어나며, 자기가 사귀는 이성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무의식의 심혼상을 상대에게 옮겨놓은 뒤 일치할 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다를 경우에는 부정적인 아니마, 아니무스상을 투사하여 상대에게서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다(이부영, 2001, 51; 이부영, 2021, 113).

선천적으로 남자는 여성적 요소를 무의식에 갖게 되고, 여자는 남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

다. 그러나 남자답게, 여자답게의 페르조나를 키우면서 내면의 인격인 아니마, 아니무스를 소홀하게 해왔다. 따라서 남성은 여성성인 아니마를 여성은 남성성인 아니무스를 보살피고 이를 의식에 통합해야 한다(이부영, 2021, 111-112).

남성의 아니마는 ‘기분’으로 표현되고 여성의 아니무스는 ‘생각’ 또는 ‘의견’으로 표현된다. 융(Jung, 2019)은 『아이온』에서 아니무스는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 철학적 혹은 종교적 사상, 그 사상에서 비롯되는 태도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는 여성에게 로고스가 되어 심사숙고와 신중, 자기지식의 능력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는 심판하는 다수의 법관이기도 하며 의견으로 남성의 영웅상인 것이다(Jung, 2018, 120, 126).

미숙한 아니마는 변덕스러운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미숙한 아니무스는 따지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남성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만 맞추지 않고 작고 정서적인 취미를 익히며 작고 섬세한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여성이 여성다움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부하며 일을 함으로써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할 때 남성은 보다 깊은 공감능력과 안정된 정서를 지닌 존재로, 여성은 지혜로운 여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이부영, 2021, 112-114).

지금까지 융의 개성화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융의 개성화 이론이 영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영성과 융의 개성화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 3. 영성형성과 융의 개성화 과정

먼저 영성의 삶의 통합적인 차원은 융의 전체성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영성은 관계적이고, 자기초월을 통해 삶의 통합을 이루며 모든 삶을 둘러싼다. 영성형성을 통해 파편화된 삶의 여러 차원들이 하나둘씩 통합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통합하며 자기 지식을 획득하고 전체성을 이루는 것과 관계가 깊다. 또한 영성의 자기초월은 초월자를 향해 나아가고, 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며 타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페르조나와 자아를 분리하는 것과 타인에 대한 그림자 투사를 멈춤으로 타인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 내면을 깊이 성찰하면서 종교적인 경험을 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융의 개성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융의 개성화 과정은 아니마 아니무스를 인정하며 자신의 삶의 원칙과 타인에 대한 태도, 내면의 욕구를 파악하며 전체성을 이루도록 한다. 이러한 점은 자기초월을 통해 진정성을 추구하며 경험, 이해, 판단, 결단하며 주의 깊고, 지적이며, 이성적이 되고, 책임감 있게 하는 영성형성과 관계가 깊다(유해룡, 2012, 193-194 참조). 또한 아니마의 정감적인 경험을 자각하고 해석하면서 지성적, 심리적, 행위까지 아우르는 전인적인 통합을 하는 것

은 영성형성의 자기초월을 통해 자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자기 통합을 이루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의 ‘자기초월’의 차원을 용의 개성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위 디오니시우스의 정화-조명-일치의 도식이 인간이 초월자에게로 상승하고 연합하는 영성의 특성을 도식화하였다면, 용의 개성화 과정의 페르조나 인식, 그림자 투사 철회, 아니마/아니무스 인식은 영성형성의 자기 객관화를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객관화는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관계를 하게 하고, 초월자와도 깊은 관계를 하게 한다. 내면의 성찰이 수평적인 차원, 수직적인 차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용은 자기(Self)의 상징으로 붓다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든다. 영성, 기독교 영성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영성형성의 목표로 둔다. 자기(Self)는 전체 정신, 객체 정신이면서 인간이 전체로서 살게 하는 창조적 원동력이 된다(이부영, 2021, 180-183). 자기(Self)는 개성화 과정의 원동력이며, 인간이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성형성을 할 수 있게 각성하게 하고, 시작하게 하며, 인간이 영성형성을 통해 닮아야 할 모범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개성화 과정과 영성형성에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차이도 있는데 기독교 영성이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모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실질적으로, 혹은 그 사상과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용의 개성화에서 본받아야 하는 자기의 상징으로서 그리스도는 집단에서 형성된 이상적 그리스도에 대한 모방과 규범이 아니라 개성적인 길을 걸어간 그의 정신과 용기이다(이부영, 2022, 91 참조). 또한 악의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극을 적그리스도라 설명한 부분도 기독교 신학과 맞지 않은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형성과정에 있어 인간 내면의 심리역동적인 차원을 용의 이론이 잘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용의 관점에서 주선애의 개성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개인이 무의식을 대면하며 자아가 자기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의 세계에 맞을 내리고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을 보았다. 개성화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격발달의 주체가 되는 ‘자아’가 인생의 전반부를 통해 바르게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선애의 영성형성에서 나타난 ‘자아’의 발달과, 페르조나, 그림자, 아니무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주선애의 개성화 과정과 영성형성

#### 1. 자아(ego)

주선애는 4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2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할아버지의 다섯 아들은 모두 폐결핵으로 사망하였고, 할아버지는 주선애가 7세에, 할머니도 9세에 돌아가셔서 이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주선애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나 사춘기에 자살충동을 경험하였다. 어릴 때부터 죽음의 이별을 경험하였고, 여학교에 다닐 때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은 대개 부잣집 딸들이었는데, 자신의 어머니는 고무신 공장에 다니며 고생하고, 자신도 9세부터 밥을 하면서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대동강에 두 번 나갔다. 그런데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며 ‘내가 죽으면 어머니는 얼마나 슬퍼하며 통곡하실까?’ 하며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주선애, 2018, 47, 52; 주선애, 2022, 녹취록). 바로 여학교의 다른 학생의 상황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난과 아픔을 느끼고 무의미와 열등감을 억누르고 있다가 그림자가 폭발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동강에 나가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으나 어머니의 얼굴은 자아가 그림자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였다. 어머니의 얼굴은 자아가 무의식에 동화되지 않도록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기대(어머니의 기대)가 되어 주선애를 허무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였다. 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사랑과 기대는 주선애의 자아를 강하게 붙들어 주었고, 주선애로 하여금 열등감과 허무의 그림자의 에너지에 휩싸이지 않도록 지켜주었다. 이러한 주선애의 강한 자아는 주선애가 이후 그림자를 마주할 때 그림자 안에 함몰되지 않고, 무의식의 요소를 의식화하면서도 일상의 삶을 지속하고 영위할 수 있게 하였다.

## 2. 개성화 과정

### 1) 페르조나와 분리

#### (1) 평양신학교에서 분리

주선애(2022)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기신 유언에 따라 ‘기독교 선생’이 되기로 하고 정진학교에서 공부하고 피아노를 2-3년 배웠다. 당시 피아노를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권한 이유는 당시 기독교 선생 중 여성이 없어서 여성 기독교 선생에 대한 모델이 없었기에 교회에서 피아노, 오르간을 하면 기독교 선생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유치원 보모, 초등학교 교사를 하며 기독교 교사의 일을 하게 되었다. 1946년 평양신학교가 문을 열어 여자 신학부가 개설되어 그곳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그런데 체험적 신앙을 갖지 못하였기에 남들이 울면서 기도를 하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여학생 학우회 회장이 되었다.

그런데 한 학우가 주선애를 질투하며 싸움을 걸어와 다툼을 하게 되었다. 신우회 회장을

말으며 싸움을 하게 되니 그동안 기도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부하던 주선애는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밤마다 교회당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낮이면 공부하고 밤이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자신의 잘못도 생각나고,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 가르친 것, 칭찬을 받기를 바랐던 마음이 생각나며 위선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선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선애는 기도하는 중 주님의 못 박히신 손, 피 흘리신 손을 생생하게 보았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해방감을 경험하고 관념적 신앙이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다툼을 했던 학우에게 찾아가 형님 덕분에 은혜를 받게 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용서를 빌었다(주선애, 2018, 74-80).

주선애의 기독교 선생, 4대째 예수 믿는 가정, 신우회 회장이라는 가정, 교회, 학교 안에서 형성된 페르조나는 한 학우와의 다툼과 비난으로 인해 흔들리게 되었다. 그러할 때 주선애는 자신의 페르조나를 주장하거나 페르조나와 자아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조나와 자아를 분리하며 기도를 통해 내면을 살피게 되었다. 그러할 때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행위의 동기와 가르침을 살피 하나님 앞에 위선자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며 구속자 예수님의 사역이 주선애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라고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체험적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페르조나와의 분리를 통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 (2) 동평양교회에서 분리

이러한 페르조나와의 분리는 동평양교회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다시 한번 일어났다. 어느 날 남학생 2명이 찾아왔는데 한 명은 김일성대학 1학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냐고 묻고 어느 날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보를 던지면서 뛰어나갔다. 함께 그 학생을 붙들고 위해서 기도하는 중 자신이 학생들을 위해 주일 아침마다 금식하기로 했는데 이날은 하지 않고 온 것이 생각나며 눈물로 회개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용서를 구하고 한 시간 후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학생은 선생님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서 찬양을 크게 하라, 작게 하라, 길게 하라고 하면서 껍데기를 꾸미는 것을 보며 위선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교회와 교사, 기독교가 위선이라고 느껴져서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선애의 눈물을 보면서 진실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주선애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네 행동이 다 내 잘못 때문이라고 회개했어. 용서해 줘!”라고 말하며 손잡고 함께 기도했다. 이후 두 학생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였는데 주선애가 남하한 뒤 교회당에서 잡혀가서 소식이 끊어졌다고 하였다. 김일성대학교 신분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이었다.

이렇게 주선애는 기독교 교사로서의 그녀의 페르조나를 ‘위선자’라고 혼든 학생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다. 그리고 페르조나와 자아를 분리하며 자신의 잘못이라고 학생에게 고백했다. 이러한 페르조나와의 분리를 통해 그 학생은 주선애의 진실한 마음을 보게 되었고, 이후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

‘기독교 교사’로서 주선애의 페르조나는 학생에 의해 흔들리게 되었지만, 주선애가 페르조나와 자아를 분리하였을 때 주선애는 자신을 다시 바라보며, 그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기독교 교사가 되었다.

## 2) 그림자 통합

주선애의 그림자 통합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억압된 그림자의 통합이며, 다른 하나는 시대적 그림자에 대한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선애 개인의 그림자와 민족의 그림자를 함께 다루고 자신의 그림자 투사와 타인에 의한 그림자 투사됨도 함께 다루면서 이 가운데 어떻게 개성화를 이루어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신망원에서 그림자 통합

주선애는 미국 유학을 가기 전, 대구 신망원이라는 고아원에서 사역하게 되었다. 신망원은 한국 전쟁 고아들이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데모해서 이전 원장이 나가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된 곳이었다. 주선애는 이곳에서 도와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랑의 방법을 쓰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거하며 사랑을 베풀어도 어린이들에게 감동이 없고 말과 행동이 여전히 거칠며, 사람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었다. 결국 주선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는 한계를 느끼며 복숭아밭에 나가 특별기도를 하였다. 어느 날 학생들이 밥을 먹기 전 예배시간에 울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울면서 계속해서 자복하여 복숭아밭으로 나가 기도를 하였다. 이때 아이들이 통회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이웃에게 전도하며 삶이 변화되었다. 주선애도 이때 여러 은사를 경험하게 되었다(주선애, 2018, 147-156). 신망원 고아들도 구호물자를 받고 이렇게 성숙한 감사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랐더라면 하나님을 몰랐을 것인데 지금 우리 신망원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먼 나라 미국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장해서 미국 교인들처럼 우리보다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주선애, 2018, 156)”

주선애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어린이들 가운데 생긴 억압, 미움, 내면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있었던 신망원에서 그 그림자를 끌어안았다. 민족의 아픔 한가운데에서 희생이 된 고아들을 탓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유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동산에 살다가 한구석에 묻혀도 좋겠다고 기도하며 신망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였다(주선애, 2018, 150). 민족의 아픔으로 인해 생긴 어린이들의 그림자를 자신의 그림자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 어린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그림자 투사를 하였던 원장의 기도를 통해 미워하고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들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자신의 그림자를 수용하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를 경험하게 되었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수용하고 통합했을 때 고아원이 천국과 같이 느껴지고(주선애, 2018, 155), 전도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주선애는 민족의 그림자를 발견하였을 때, 그곳을 지나치지 않았다. 그 그림자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민족의 아픔으로 인해 생긴 어두운 그림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있었던 그림자가 점차 의식화가 되면서 아이들의 전체성을 이루어가고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주선애 자신도 이때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하게 되었다.

## (2) 유학시절 그림자 통합

주선애가 뉴욕성서신학교에서 유학하던 시절, 기숙사 옆방에는 일본 여학생 기타가와 아이코가 있었다. 아이코는 키도 크고 영리하고 애교 있고, 영어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주선애는 해방된 지 11년 만에 만나는 일본 사람이라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데다가, 아이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선 점이 시기가 났다. 시기와 미움이 있으니 마음이 불편했고 언제부터인지 기도가 막혔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코를 한국 사람들끼리 드리는 주일 예배에 초대해서 일본말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주선애는 기도하는 중 “주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하고 아이코를 껴안아 주었고, 성령의 역사로 모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코가 잘못했다고 빌자 한국인 유학생들은 자신들이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잘못을 빌었다. 아이코는 자신이 외국에 나온 것이 처음이어서 일본인들의 잘못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며 얼마나 나쁘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겠느냐며 울며 큰 부흥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신학교 졸업 후에도 아이코와 교분을 갖고 관계를 이어갔다(주선애, 2018, 184-188).

주선애는 일제 강점기라는 아픔으로 일본인에 대한 억눌린 감정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앞선 아이코에 대해 시기심이 들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억압하자 기도가 막히게 되어, 주선애는 성찰과 대화, 화해의 자리로 나아갔다. 자



신의 민족의 아픔으로 인해 미움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림자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아이코를 한국인 예배에 초청해 기도하는 중 성령의 역사로 통회와 자복이 일어났다. 주선애도, 한국인 유학생들도 마음속의 미움을 회개하고, 아이코도 민족의 아픔을 깨닫고 용서를 구했다. 주선애는 내면에 있는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열등감, 시기심이 통합되면서 내면의 단절과 분리를 극복하고 세계 속의 기독교 교사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

개인과 민족의 열등감, 부정적 마음이 한 개인과 민족에게 투사될 수 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돌이켜 자신의 내면의 억압된 그림자를 자각하고 그것을 성찰하고 투사를 철회할 때 전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주선애는 그렇게 하였기에 초월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일본인과의 화해, 다른 사람과의 화해를 하며 전체성을 이루어갔다.

### (3) 망원동에서의 그림자 통합

1970년대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 들어서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저소득층이 살기가 쉽지 않았다. 그 가운데 망원동 판자촌은 화장실도 없고 보건기관과 교회도 없는 잊혀진 동네였다. 그야말로 산업화 시대의 대한민국의 그림자와 같은 동네였던 것이었다.

주선애는 남편의 사업의 부도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아이들을 보게 되어 따라가 보니 판자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보여 주셨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이들을 도우라는 것인 줄 압니다.”고 기도하였다. 이후 학부 기독교교육과 3학년 수업에서 망원동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상양 전도사를 비롯하여 4명이 이곳에서 동고동락하며 이들을 돕게 되었다. 공중 화장실을 짓고, 홍수로 인해 수재민이 났을 때 이들을 대피시키고, 노인들을 위한 노인정, 청소년을 위한 야간 중학교, 어린이집 운영, 소일거리 제공, 내집 갖기 운동 등 망원동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였다. 그리하여 동네에 희망이 가득 차고 밝아졌다. 재판관, 위로자, 상담자, 선한 목자였던 이상양 전도사는 폐 수술을 하며 숨이 차는 가운데 웃음을 지으며 “선생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곳에 보내주셔서 내 인생에 제일 행복한 시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주선애, 2018, 282-297).

망원동은 산업화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다. 주선애와 이상양 전도사는 그곳을 바라보았을 때 그림자를 억압하고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주선애는 산업화로 인해 소외와 배제, 잊혀짐, 침묵의 그림자가 망원동에 형성되었을 때 그곳을 지나치지 않고 기독교교육과 학생들과 함께 마주하며 끌어안았다. 이러한 그림자를 끌어안고 그 그림자에 드리워진 사람들을 찾아가며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실천했을 때 그곳에 희망이 피어나며 산업화로 인해 양극화로 분리된 사회가 점차 통합되어 갔다.

#### (4) 여성 기독교인의 그림자 통합

주선애의 장로회신학대학교 23년간의 사역 동안 경험과 실천을 통한 학생교육, 총회 《성서와 생활》교육과정 개발 외에 관심을 둔 분야는 여성이다. 그녀는 총회 결의에 따라 신학교에서 여전도사를 교육하도록 하여 초급대학 과정을 개설해서 이 책임을 맡게 되었다(주선애, 2018, 254).

대한민국의 여전도사는 사회의 개화운동과 함께 일어나서 민족의 독립운동, 절제 운동, 기독교교육 운동, 문맹퇴치 운동과 같은 사회운동과 더불어 전도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그래서 가정에서 누구의 아내와 어머니로 머물던 여성들은 자신의 자아를 찾으며 교회 내 지도자로,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적 박해와 일제 강점기의 여성상과 더불어 여성의 자아의식, 목회자들의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해 여전도사들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주선애, 2018, 255-256). 그렇기에 주선애는 교회 내에서 가려진 여성 지도자의 역할과 그들에 대한 배제와 침묵을 마주하며 소명이 있는 이들은 입학자격시험과 무관하게 교육하여 한국 여성의 지도력을 활용하여 한국 여성들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또한 평신도들을 위한 교회여성지도자교육원, 여자신학교육원을 세우며 교회 여성들을 일깨우고 비전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였다(주선애, 2018, 261-266).

당시 한국 여성들은 개화기 선교사들에 의해 ‘~의 아내’, ‘~의 어머니’라는 페르조나와의 분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후,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일제 강점기에 새로 부과된 페르조나를 써야만 하였다. 자신들의 내면을 성찰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여성 기독교인은 침묵과 배제하에 있게 되었다. 여성은 참된 자기를 실현하지 못한 채, 남편 보필과 자녀 양육 이후 혼자 인생의 허무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허영과 사치로 세상을 더럽히기도 하였다(주선애, 2018, 262).

따라서 주선애는 교회 안에서 그림자와 같이 잊혀지고 배제되고 침묵된 여성의 리더십과 여성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마주하고 의식화하여 치우친 한국교회를 통합하고 치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 부흥에 따라 안일한 생활에 빠져 민족적 분열의 아픔과 도덕적 타락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을 일깨우고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주선애, 2018, 261).

이외에도 주선애는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하였다. 윤락여성 선교, 빈민들을 위한 관심과 선교, 때를 놓쳐서 신학을 공부하지 못한 여성, 농어촌 여교역자들을 위한 교육과 섬김의 일을 하였다. 은퇴 후에는 목회자 사모, 북한이탈주민, 은퇴 여선교사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사회와 종교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하나씩 끌어안고 통합하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전체성을 이루도록 도왔던 것이다. 새로운 소명을 받고, 이러한 소명을 실천하는 가운데 현실의 상황과 초월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아가 발달했다. 그녀는 기독교와 이 사회의 분열되고 나뉜 곳을 보듬으며 통합해갔다.

### 3) 아니무스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로고스가 되어 심사숙고와 신중, 자기지식의 능력을 부여한다(Jung, 2019, 34). 이는 심판하는 다수의 법관이기도 하며 의견으로 남성의 영웅상이다(Jung, 2018, 120, 126). 이러한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있는데 남성에게 대한 집적물이다.

주선애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도 7세에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사촌 백부가 집안의 가장 어른이었던 상황 가운데 성장하였다. 최기호 전도사와의 결혼도 어머니의 권유에 의해 일찍 이루어졌기에 아니무스를 이성에게 대한 투사를 통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주선애가 낮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보듬는 모습과 가르침을 통해, 이러한 삶을 몸소 실천하고 강조하고 타인에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 그녀의 삶의 지침과 상위 원리인 아니무스는 바로 이러한 모습과 태도와 연관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는 이후 가가와 도요히코의 생애와 사상과 만나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구체화하며 주선애의 허무와 어려운 삶 속에서 억압된 감정들을 치유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의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주선애의 삶에 의미를 주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고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고뇌를 해결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롭고 소외된 자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그리스도를 닮아 가장 낮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주선애, 2018, 64). 바로 그를 둘러싼 상황은 동일할 수 있었겠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의미를 찾아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 어려운 상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부여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현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가와 도요히코의 모습을 통해 주선애는 산파술을 배워 무의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일을 이어갔다. 이러한 모습은 주선애의 삶에 겸소한 삶의 태도, 타인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진다.

주선애의 ‘낮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면서 그에게 영향을 준 가가와 도요히코의 삶이었다. 백부를 통해 듣고 경험한 한경직 목사의 삶이자 모습이었고, 그를 따라 망원동의 사람들을 섬긴 이상양 전도사의 모습이었다.

훗날 김명식 집사와 결혼하면서 약혼반지를 비싼 것으로 사려할 때 의견의 충돌을 가졌거나, 선물과 물건, 삶의 양식에서 남편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며, 남편도 점차 절약형으로 변해가게 되었다는 점을 볼 때(주선애, 2018, 355), 주선애의 아니무스 상은 ‘낮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아니무스는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 되어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을 지향하고, 그러한 삶을 요구하며, 그러한 삶을 가르치게 된 것이다. 하용조 목사의 “주선애 교수님은 나에게 가난한 자에

게 베푸는 긍휼한 마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고백도 이러한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가가와 도요히코의 삶의 모습은 일평생 주선애의 삶의 지침과 원칙이 되었고 남성 영웅상이 되었을 것이라 본다. 이러한 아니무스가 고집이나 의견이 아니라 지침이 되었던 것은 주선애가 공부와 일을 통해 생각하는 훈련을 키우며 훈련하였기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한다.

이상으로 개성화 과정을 통해 주선애의 영성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주선애의 개성화 과정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3. 주선애의 개성화 과정의 특징

#### 1) 회개의 삶을 통한 페르조나와 자아(ego)의 동일시 약화

주선애는 당시 사회에서 드문 4대째 기독교 가정의 자녀로 공부를 한 여성이었다. 기독교 교사를 꿈꾸고 신학생, 사모, 전도사, 여교수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였다. 그렇기에 기독교인, 사모, 신학생, 사역자, 교수라는 페르조나를 가지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녀는 다툼이나 갈등으로 페르조나가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페르조나를 강화하거나 자아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으로 페르조나와 분리를 하였다. 그 가운데에 내면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림자와 통합을 이루었다. 그러할 때 타인의 비난과 갈등, 삶의 어려운 상황은 개성화를 이루는 동력이 되었다. 주선애는 최초의 여성 기독교교육학자로서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얻음에도 회개의 삶을 통해 계속 자신은 죄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야만 하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페르조나와 자아의 구분을 지으며 자신의 참 모습을 알아가며 개성화를 이루어갔다. 초월자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에 대하여도, 타인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고 진실하게 관계하였다.

#### 2) 새로운 소명을 통한 자아(ego)의 발달과 개성화

융(2005)은 인생의 전반부에는 자아를 형성해야 하며, 자아가 잘 형성되어야 개성화를 잘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생명의 확장과 정복, 생계를 위한 노력, 외부 세계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후반부에는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면을 성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고 후반부를 살아갈 때 전반부의 원칙에 지배를 받게 되면 우울하거나 과거를 찬양하고, 교조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융(2005)은 자신의 환자의 3분의 2가 중년기를 넘긴 사람들이며, 환자들 과반이 의식의 자원이 고갈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내면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면의 성찰에 대한 강조는 노년기의 사람들에게 목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

다. 융(2005)은 지향점이 있는 삶이 목표 없는 삶보다 더 훌륭하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삶에 작별을 고하지 못하는 것과 죽음 앞에 움츠러드는 것은 완고함 혹은 건강하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죽음을 의식하면서 추구할 목표를 발견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부에는 자아, 인생의 후반부에는 개성화 과정이 중요하며,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 삶의 목표가 필요하지만 그 목표와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달라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젊은이는 삶을 확장해야 하고 노인은 죽음을 앞두고 언젠가는 삶의 작별을 고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목표와 지향점을 갖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생의 '자아'는 전반부에 발달하고 후반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오전과 오후라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목표, 지향점을 발견하는 가운데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선애의 경우 정년퇴임 이후 그동안 소외되었던 목회자 사모, 북한이탈주민, 여교역자 등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받고 그들을 위해 소명을 이루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아가 발달하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개성화 과정을 이루었다.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는 가운데 인간의 자아는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그 가운데 개성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3)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림자 통합과 성화

융은 개성화의 과정을 통해 자아가 자기(Self)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인간 고유의 특성을 찾으며 점차 자기(Self)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의식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면서 인간은 자기(Self)가 되어간다. 융은 이러한 자기(Self)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다. 주선애는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였을 때 그 그림자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견한 그리스도의 상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였다.

평양신학교 시절 한 학우와의 다툼으로 인해 기도하였을 때 그녀는 주님의 못 박하신 손, 피 흘리신 손을 생생하게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죄를 위해 이미 사한 증거다.”는 음성을 들었다. 유학시절 일본인 아이코에 대한 미움을 자각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자신들의 둘레 안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주선애, 2018, 186). 그리고 아이코에게 사과하고 아이코도 일본의 죄를 사과하며 큰 부흥회를 갖게 되었다. 바로 부정적인 그림자,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상은 단순히 닮아야 하는 자기의 상징을 넘어서서 “너의 죄를 사했다.”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하신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러할 때 죄책감과 억눌린 감정의 해소와 통합을 넘어서서 죄의 용

서를 경험하게 되었다.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간 것이다. 바로 주선애의 개성화 과정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선애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되었다.

#### 4. 개성화 과정과 영성형성

지금까지 주선애의 영성형성과정을 용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글은 영성의 다양한 특성 가운데 로너간과 도란의 견해에서도 나타난바, ‘자기초월’에 초점을 두고, 삶의 통합의 차원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기초월은 초월자와의 관계, 타자 지향, 자기 객관화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영성의 관계지향적 차원, 내면적 요소, 초월자와의 관계, 삶 관련성과 통전성의 차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초월은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만 실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타인과 초월자와의 관계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초월은 개성화 과정의 페르조나와의 분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는 페르조나가 개인 행위의 주체인 ‘자아’와 동일하지 않다고 자기 객관화를 해주기 때문이다. 주선애는 4대째 신앙인, 신학생이라는 페르조나를 통해 자신은 특별히 회개를 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 학우와의 다툼으로 인해 기도하였을 때, 신앙인, 신학생은 페르조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망원 고아들과 유학시절 아이코와의 관계에서 그림자 투사 철회를 통해 타인을 선입관 없이 바라볼 수 있었다.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를 성찰하고, 타인의 아픔을 끌어안았을 때, 그것은 사랑으로 타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 내면의 그림자 투사 철회는 타인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였다. 즉, 타자 지향과 초월자와의 관계로 이끈 것이다. 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망원동에서의 사역은 기독교 내, 한국 사회 내 드리워진 그림자를 의식화하며 기독교의 온전성을 회복하고 통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성화 과정을 통해 본 영성형성과정은 ‘회개의 삶’을 통해 가능했고, 소명을 통해 삶 전체 가운데 이뤄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 내면의 전체성을 이루는 것에서 넘어서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주선애의 영성형성과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 영성교육의 방향은 무엇일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IV. 기독교 영성교육의 방향

### 1.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조화를 이루는 기독교 영성교육

용의 개성화 과정에서 살펴본바, 자신의 그림자는 타인에게 투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면의 수용할 수 없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타인에게 투사되며 이유 없이 미움과 부정적인 감정이 싹트고 배제와 다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림자 투사를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그림자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할 때 전체성을 형성하고 오히려 타인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지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잘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교육은 그림자 투사를 거두면서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의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제임스 파울러는 4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자아와 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Fowler, 1995, 292-293). 바로 신앙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전망과 자신의 세계관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5단계 결합적 신앙은 4단계에서 자기 확실성, 실재에 대한 의식적인 인지적, 정서적 적응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억압되었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던 많은 것을 자아와 조망으로 통합한다고 보았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보다 깊은 자아의 목소리)에 개방적이 되며 사회적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결부된다는 것이다(Fowler, 1995, 317-318). 이는 현재의 상황과 문제, 일상의 삶에서 직면하는 갈등, 내면의 성찰이 영적 성장과 신앙 발달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렇기에 기독교 영성교육은 갈등과 비난, 부정적인 모습을 회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고 진지하게 성찰하며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성찰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인정하며, 타인에 대한 투사를 거두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훈련, 다름에 대한 인정을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각-숙고-통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지, 공동체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인지를 자각하며 현재의 나와 공동체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나와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어두움, 부정적 감정, 갈등을 마주하고 그것을 나와 우리의 모습으로 수용하며, 그것을 숙고하며 갈등과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 이전의 나와 우리에게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합함으로써 나와 우리에게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타인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면의 성찰을 통해 초월자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선입견이나 우월감 없이 타인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며 초월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바라봄이 아닌 반성적 바라봄, 세밀한 관찰을 해야 할 것이다. 기

독교교육 현장의 모습과 특징을 면밀히 관찰하고 현실 속에 적용 가능한 기독교교육의 모습을 구성하고 창조해야 할 것이다(고원석, 2019, 285). 관계성, 평등성, 개방성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과 구별되는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타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김현숙, 2015, 134-135, 148).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하며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회복해야 한다(박상진, 2018, 199).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화에 포함시키고, 주변화되고, 소외되고 가난하며, 억눌린 자들의 목소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장신근, 2007, 133).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손을 내밀고 그늘진 응달에 살기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웃을 향하여 이웃교회와 연대하여 협력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김도일, 2020, 74). 이런 섬김과 봉사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 구성원들이 1인 1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교회 밖 봉사와 섬김으로 실천할 수 있다(김성중, 2020, 56). 이를 위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신앙공동체를 세우며,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도 돌봄과 배려와 사랑의 경청을 회복하는 공간을 창조하여 신앙공동체의 교육과 친교를 세워가야 할 것이다(신현호, 2022, 290).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교육과정은 회중들의 상호작용이기에 상호적 소통을 촉발시켜 교회교육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김효숙, 2016, 38). 교회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인적, 물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소명을 확인하고 헌신해야 할 것이다(김정준, 2021, 35).

## 2. 일상의 삶에서 초월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독교 영성교육

양금희(2015)는 주선애의 삶을 그녀답게 만든 것이 상황과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왜 제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영성적 응답방식이 그녀를 그녀의 것이 되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대와 상황에 대한 응답방식이 주선애의 고유한 특성을 찾게 해주며 본래적인 자기가 되게 해주었다. 주선애에게 일상의 삶은 현실 세계에만 주목하는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삶의 역경에 의미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소명을 깨닫게 하며, 일상의 삶에서 영성이 형성되게 한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고 새로운 도전 앞에 순종하며,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 것이다. 이러한 일상의 삶은 초월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였으며, 영성형성의 자리였던 것이다.

주선애의 삶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되는 평양신학교 갈등에서의 기도는 그림자를 직면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림자를 통합하게 하였다. 주선애 삶의 후반부에서 지속된 새로운 소명에 대한 응답과 도전은 그녀의 자아가 환경과 반응하며 계속 발달하게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 교사라는 정체성은 북한이탈주민의 교사, 여교역자들의 교사, 사모들의 교사 등 다양하게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초월자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는 방식은 삶의 전반부에서도 개성화 과정을 이루게 해주며, 후반부에서도 새로운 도전 앞에 응답하며 자아가 발달하고 인격의 발달을 이루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자아발달과 개성화를 위한 전세대적인 영성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들의 영성적 능력에 대하여도 함께 고려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영성교육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유선희, 2012, 192-193). 교회 내 즐거운 활동 경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정서를 유발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경제 위기, 실업률 증가, 공교육 붕괴, 생태계 위기, 전쟁과 테러 등의 삶의 현실에서 교육자가 말씀의 진리로 분별하고 신앙으로 세상과 구별된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과 실천을 보여야 할 것이다(신형섭, 2018, 56). 기독교교육과 가정교육이 인간존재의 정서적인 차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영적지도를 병행함으로써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야 할 것이다(박미라, 2012, 104).

## V. 나오는 말

코로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코로나19의 상흔이 남아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의식 아래로 밀어넣은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때에 주선애의 영성형성과정은 갈등과 역경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선애는 한 세기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시대적 아픔과 민족적 고난, 개인적인 어려움과 갈등을 고스란히 경험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페르조나와 자아를 분리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전체성을 이루며 개성화를 실현해갔다. 그늘진 곳을 드러내고 통합하며 어두운 곳에 복음과 희망의 빛을 비추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는 이러한 그림자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이것들이 개성화 과정을 이루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며 개성화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잊혀진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살피며 그것들을 드러내고 의식하며 통합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자아와 페르조나를 분리하여 시대의 흐름과 삶의 변

화 가운데 변치 않는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 초월자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적 성장을 이뤄야 할 것이다. 그리하는 가운데 참된 자기 자신이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Bowe, B. E. (2003). *Biblical Foundations of Spirituality*. New York: A Sheed & Ward Book.
- Conn, J. W. (1986). *Women's spirituality: Resources for Christian development*. New York: Paulist.
- Doran, R. M. (1988). Jungian Psychology and Christian Spirituality: I, II, III. Moore, R. L. (ed.). *Carl Jung and Christian Spirituality*. New York: Paulist Press.
- Downey, M. (2001). **오늘의 기독교 영성 이해**. 안성근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Downey, M. (2001). *Understanding Christian spirituality*. (Ahn, S. G. Trans.). Seoul: Eunseong.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Fowler, J. W. (1995). **신앙의 발달단계**.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Fowler, J. W. (1995). *Stages of faith*. (Sa, M. J. Trans.). Seoul: Korean Presbyterian Publishing House.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Hanson, B. C. (2000). Spirituality as spiritual theology. Kenneth J. Collins. (ed.). *Exploring Christian spirituality*. Michigan: Baker Academic.
- Johnson, R. A. & Ruhl, J. M. (2023). **내 그림자에게 말 걸기**. 신선해 역. 고양: 가나문화콘텐츠.  
[Johnson, R. A. & Ruhl, J. M. (2023). *Living Your Unlived Life*. (Shin, S. H. Trans.). Goyang: Ghanaian Cultural Contents. (Original work published 2007).]
- Jung, C. G. (2005). **영혼을 찾는 현대인**. 김세영 역. 서울: 부글북스.  
[Jung, C. G. (2005).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Kim, S. Y. Trans.). Seoul: Boogle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55).]
- Jung, C. G. (2018). **인격과 전이**.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서울: 솔출판사.  
[Jung, C. G. (2018). *Persönlichkeit und Übertragung*. (Jung's Works Translation Committee in Korea Trans.). Seoul: Sol Publishing House. (Original work published 1984).]
- Jung, C. G. (2019). **AION(아이온)**. 김세영, 정명진 역. 서울: 부글북스.
- Jung, C. G. (2019). *Aion :Untersuchungen zur Symbolgeschichte*. (Kim, S. Y. Trans.). Seoul: Boogle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50).]
- Jung, C. G. (2022). **칼 융 무의식의 심리학**. 정명진 역. 서울: 부글북스.  
[Jung, C. G. (2022). *Psychology of the unconscious*. (Jung, M. J. Trans.). Seoul: Boogle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2001).]
- Jung, C. G. (2023). **카를 융 기억, 꿈, 사상**. 조성기 역. 파주: 김영사.  
[Jung, C. G. (2023). *Memories, dreams, reflections*. (Cho, S. K. Trans.). Paju: Gimmyoung. (Original work published 1963).]
- Macquarrie, J. (2000). Spirit and spirituality. Collins, K. J. (ed.). *Exploring Christian spirituality*. Michigan: Baker Academic.
- McGrath, A. (2006). **기독교 영성 베이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McGrath, A. (2006). *Christian spirituality : an introduct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Original work published 1999).]
- Underhill, E. (2004). *Mysticism*. Oxford: Oneworld.
- 고원석 (2019). **현대 기독교교육 방법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Koh, W. S. (2019).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 Methodology*.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김도일, 장신근 (2009). **기독교 영성교육**. 서울: 동연.
- [Kim, D. I. & Jang, S. G. (2009). *Education for christian spirituality*. Seoul: Dongyeon.]
- 김도일 (2020).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4, 51-79.
- [Kim, D. I. (2020). Christian Education with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4, 51-79.]
- 김성민 (2012). **분석심리학과 기독교(2판)**. 서울: 학지사.
- [Kim, S. M. (2012). *Analytical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nd Edition). Seoul: Hakjisa.]
- 김성중 (2020).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63, 39-64.
- [Kim, S. J. (2020).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 COVID-19.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39-64.]
- 김정준 (2021).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새 전망. **기독교교육논총**, 67, 11-44.
- [Kim, J. J. (2021). New Perspectives on Sunday School of Korean Church for Next Gener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11-44.]
- 김화자 (2022). 여교역자들의 어머니, 주선에 교수님. **교육교회**, 517, 20-24.
- [Kim, H. J. (2022). Mother of Women Ministers, Professor Chou Sun-Ae. *Educational Church*, 517, 20-24.]
- 김효숙 (2016). 다음세대와의 상호적 소통을 위한 교사 역량의 중요도-실행도 분석. **기독교교육논총**, 46, 13-46.
- [Kim, H. S. (2016).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Teacher Competencies for Mutual Communication with the Next Gener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6, 13-46.]
- 김희영 (2017). 여성 기독교인의 영성형성과정 연구-자아정체성과 자기초월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Kim, Hee Young (2017). Studying the Christian Women's Process of Spiritual Formation: Ego-identity and Self-Transcendence. Doctoral thesis at the Graduate School of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박미라 (2012). 학교상담현장에서의 위기유형분류의 기독교 가정교육(사역)적 접근. **기독교교육논총**, 30, 81-107.
- [Park, M. L. (2012). Christian Educational Approach for Crisis Pattern Classification in School Counseling: Family Life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0, 81-107.]
- 박상진 (2018). **기독교 교육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Park, S. J. (2018). *A new paradigm in the Christian curriculum*.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박상진 (2022). 주선에 교수님과 기독교교육. **교육교회**, 517, 15-19.
- [Park, S. J. (2022). Professor Chou Sun-Ae and Christian Education. *Educational Church*, 517, 15-19.]
- 신현호 (2022). 메타버스를 통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70, 267-302.
- [Shin, H. H.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Christian Education on Digital Storytelling in the Metavers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0, 267-302.]
- 신형섭 (2018). **가정 예배 건축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Shin, H. S. (2018). *Architecture of Home Worship*.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양금희 (2015). 한국 최초 여성 기독교교육학자, 주선의 공적 기독교교육 사상과 실천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7, 279-309.
- [Yang, K. H. (2015). A Study on the First Woman Scholar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Chou Sun-Ae's Idea and Practice of Public Christian Educatio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7, 279-309.]
- 양금희 (2020). 영성적 인식론과 영성적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8, 273-307.
- [Yang, K. H. (2020). A Study on Spiritual Epistemology and Spiritu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118, 273-307.]

- 양금희 (2021). AI시대의 영성적 가르침에 관한 연구: “관상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66, 11-48.
- [Yang, K. H. (2021). A Study on Spiritual Teaching in the Age of AI : Focused on “Contemplative Pedagog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6, 11-48.]
- 오인탁 (1998). 주선애의 생애와 사상. **기독교교육논총**, 3, 219-255.
- [Oh, I. T. (1998). Chou Sun-Ae’s Life and Thought.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 219-255.]
- 오인탁 (2022). 내 마음의 가동 주선애 교수님. **교육교회**, 517, 10-14.
- [Oh, I. T. (2022). Professor Chou Sun-Ae, the Pillar of My Heart. *Educational Church*, 517, 10-14.]
- 유선희 (2012). 제롬 베리맨(Jerome W. Berryman)의 어린이영성교육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32, 167-197.
- [Yoo, S. H. Study on Children’s Spirituality Education of Jerome W. Berryman: Critical Reflection on Cognitivism of Children’s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2, 167-197.]
- 유해룡 (2012). 영적성장에 대한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장신논단**, 44, 187-211.
- [You, H. Y. (2012). What is the Authenticity of Spiritual Growth?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4, 187-211.]
- 이규민 (2015). 용의 종교심리학에 나타난 종교의 역할과 치유적 기능: 종교 이해의 타당성과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43, 137-167.
- [Lee, K. M. (2015). The Role and Therapeutic Function of Religion in Carl Jung’s Religious Psychology: With a Focus on Its Implications for Christian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3, 137-167.]
- 이규민 외 3인 (2008). **영성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교육역연구원.
- [Lee, K. M. et al. (2008). *Spiritual Education*. Seoul: Korea Christian Education Ministry Research Institute.]
- 이금만 (2000). **영성교육과 하나님체험**.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 [Lee, Geum Man (2000). *Spiritual Education and Experiencing God*. Seoul: Han Shin University Press.]
- 이부영 (2001). **아니마와 아니무스**.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 [Rhi, B. Y. (2001). *Anima and Animus*. Seoul: Hangilsa Publishing Co.]
- 이부영 (2003). **그림자**. 파주: 도서출판 한길사.
- [Rhi, B. Y. (2003). *Shadow*. Paju: Hangilsa Publishing Co.]
- 이부영 (2021). **분석심리학 이야기**. 서울: 집문당.
- [Rhi, B. Y. (2021). *Stories on Analytical Psychology*. Seoul: Jipmoondang Publishing Co.]
- 이부영 (2022). **자기와 자기실현**. 파주: 도서출판 한길사.
- [Rhi, B. Y. (2022). *Self and Self-actualization*. Paju: Hangilsa Publishing Co.]
- 임창복 (2006). **기독교 영성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교육역연구원.
- [Lim, Chang-Bok (2006). *Christian Spiritual Education*. Seoul: Korea Christian Education Ministry Research Institute.]
- 장신근 (2007). **공적실천신학과 세계화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Jang, S. G. (2007). *Public Practical Theology and Christian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조은하 (2010). **통전적 영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동연.
- [Cho, Eun-Ha (2010). *Holistic Spirituality and Christian Education*. Seoul: Dongyeon.]
- 주선애 (1976). **여성을 위한 설교**. 서울: 목양사.
- [Chou, S. A. (1976). *Sermons for Women*. Seoul: Mogyangsa.]
- 주선애 (1978). **장로교여성사**. 서울: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 [Chou, S. A. (1978). *History of Women in the Presbyterian Church*. Seoul: National Union of Women’s Missionary

Societies.]

주선애 (1986). **살며 섬기며: 주선애 글모음**. 서울: 두란노서원.

[Chou, S. A. (1986). *Living and Serving. A Collection of Chou Sun-Ae's Writings*. Seoul: Duranno. ]

주선애 (2018). **주님과 한평생**. 서울: 두란노서원.

[Chou, S. A. (2018). *A lifetime with the Lord*. Seoul: Duranno.]

주선애 강의 녹취록 (2022). **제7회 장신대 도서관 행사 대담 내용**.

[Transcript of Chou's lecture (2022). Conversation at the 7th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Library Event.]

차정규 (2022).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신 주선애 교수님을 기억하며. **교육교회**, 517, 25-29.

[Cha, J. K. (2022). Remembering Professor Chou Sun-Ae, who is still alive in my heart. *Educational Church*, 517, 25-29.]